

순천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위해 국내 최대 농경지 매입

105억원 들여 15ha 사들여...순천만 연결 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하고 수질 개선 효과에 흑두루미 서식지 확보

순천시가 올해 가장 넓은 농경지를 사들여 순천만 습지 복원에 나선다.

순천시는 지난달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농경지(해룡면 선학리) 15만2603㎡에 대한 토지 매입과 등기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습지복원팀을 신설한 순천시는 환경부 습지 토지매입비 총 238억원(전국) 가운데 12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는 국비 105억원을 들여 가장 큰 규모의 농경지를 사들

였다. 순천시는 '순천 동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순천시는 환경부 국비 사업으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토지를 사들여왔다. 사유지 295만6461㎡ 가운데 11.2% 비중인 33만1740㎡를 매입했다. 올해 매입한 농경지는 15만2603㎡로, 최근 8년간(2016~2023년) 매입한 17만9137㎡와 맞먹는다.

올해 토지 매입비용 105억1500만원을 포함해

습지보호지역을 사들이는 데 총 241억7700만원 이 들었다.

'팍사르 습지'로 등록된 순천 동천하구는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하천 인근 농경지에서 이뤄지는 영농 활동이 하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습지 기능을 잃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천시는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국비 증액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습지를 복원하면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넓히는 데도 보탬이 된다.

동천하구 습지복원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총사업비는 480억원으로, 국비(471억원) 비중이 98.1%에 달한다.

하천구역 안 농경지 59만㎡를 사들여 영농 행위를 제한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처와 탄소흡수원을 늘릴 계획이다.

순천시는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복원해 기후위기와 종 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토지 매입과 복원 사업을 마무리해 순천만부터 도심까지 방향 생태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동천하구 보축 정비 공사를 벌인다.

박은선 순천시 순천만보전과 주무관은 "이번 습지 복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자연의 원시성을 더욱 강화해 고품격 생태 관광을 벌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복원을 위해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농경지를 사들여 생태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선호도를 조사했다. 지난해 축제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시민 59% "불꽃축제 개최지 옮겨야"

81% "해마다 개최해야"

여수시민 5명 중 3명꼴로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장소를 현재 이순신광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여수시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시민소통광장에서 175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불꽃축제 개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

최적지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해상, 신월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등 순으로 꼽혔다.

그동안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열린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는 교통 체증과 주민 피로감 누적, 해상 활용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개최 장소는 '1곳으로 해야 한다'가 53%, '2곳에서 순회 개최해야 한다'가 46% 등으로 나타났다.

개최 주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81%, 격년제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별 접근성, 관광 기반시설, 교통 문제, 방문객 수용 공간 규모, 불꽃 바지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축제 개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축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알게 됐다"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변화된 축제를 위해 축제 장소 최적지 선정, 새로운 불꽃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 조성된 황토맨발길.

여수시 봉화산에 1.4km '황토맨발길' 조성

여수시는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에 지역 최장 1.4km 길이의 '황토맨발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황토맨발길은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요 산림과 공원, 녹지 곳곳에 조성됐다.

고운 황토가 깔린 견식 황토길과 촉촉한 흙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습식 황토길로 구분돼 이용객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맨발걷기 체험이 가능하다.

황토맨발길은 이날 본격 개장됐으며, 맨발길 이용객과 산림객의 발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은 제한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새로운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항 물동량 11개월 연속 증가세

홍보·선사매칭 마케팅 등 효과

광양항 물동량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등 호남 지역 화주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광양항 홍보와 선사매칭 마케팅을 병행했다.

타 항만 대비 광양항의 장점을 알리는 마케팅뿐 아니라 화주에게 가장 적합한 정기선 서비스 노선을 분석해 선사와 매칭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5월 누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81만TEU를 처리했다.

이 외에도 넓은 부지와 깊은 수심 등 광양항의 장점을 활용해 자동차 환적화물 유지에도 힘을 쏟은 결과, 지난 4월 공사장립(2011년 8월) 이래 자동차 누적 처리 1000만대를 달성했다. 지난 5월에는 누계 자동차 처리량 49만대로 광양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자동차 물동량 처리기록을 경신했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이라며 "고객이 광양항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 등이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에서 이불 세탁 봉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어르신 이불 세탁해 드립니다"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 시작

보성군이 마을 곳곳을 찾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불을 대신 빨아주는 '복지 600' 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이달부터 '복지 600' 사업의 하나로 '반송보송-포근포근-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은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다.

보성군은 지난해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각 2대를 갖췄다.

사업을 맡은 보성시니어클럽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고령 주민의 이불 빨래를 가져가 뺐 뒤 다

시 경로당으로 배달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1일 자원봉사자 10명과 이불 빨래에 나서기도 했다.

보성군은 이불 빨래방 외에도 '가족봉사단 가사 지원서비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방역사업' 등의 군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은 아직도 세탁기가 없거나 이불 세탁이 힘든 가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복지 정책부터 일상생활 돌봄까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민의 삶에도 녹아드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6개월간 13개 과정 249명 참여

국가·민간 등 자격증 취득 교육

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과정 13개 분야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벌인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우주홀에서 '2024년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고흥군이 군비 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청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교육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1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고흥군은 지난 5월 수요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67명의 수강생을 공개 모집했다. 이후 13개 과정 249명의 수강생을 확정했다.

청년리더 아카데미 교육은 수강생의 자격증 취득을 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가자격취득 8개(떡 제조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굴착기 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용사, 장례지도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그래픽기술자격(GTQ) 2급) ▲민간자격 2개(조항 지도사, 자이언트 실크플러워) ▲소양 3개(셀프 인테리어, 청년



'고흥 청년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프로파일러(수사관) 배상훈씨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명사특강, 청년 경제 금융교육) 등으로 나뉜다.

교육은 청춘누리과 여성지원센터, 전문학원 등에서 진행된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의 전문 강의를 고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청년리더 아카데미에는 200명 넘는 청년이 참여했다. 자격 취득 과정 수강생 164명 가운데 99명이 자격증을 땀다. 이 가운데 49명이 자

격증을 활용했고, 2명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집 인원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했다"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에 감사의 전하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자경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 '행복한 아버지 학교' 참가자 모집

곡성군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한 '행복한 아버지 학교'를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6일까지 '행복한 아버지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회를 맞은 이 행사는 이달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열린다. 곡성에 살면서 자녀를 둔 아버지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내 마음 사용법'이라는 주제를 지닌 이번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아버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녀와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문가는 자식을 정진하고 훈계하는 방법과 공감 대화법을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1388.gsyou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